

광주시·공공기관, 다회용 컵 사용 확대 나선다

박물관 등 5곳에 텀블러 세척기 등 11대 추가... 19대 운영 친환경 무인카페 조성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 박차

광주시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다회용 컵 사용 확대에 나선다.

광주시는 "5개 기관에 컵 내장형 세척기, 다회용 컵(텀블러) 세척기 등 다회용 컵 살균세척기 11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다회용 컵 살균세척기가 설치된 5개 기관은 광주 시청, 광주시인재교육원, 역사민속박물관(마한유적체험관 포함), 광주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 광주소방학교 등이다.

시는 기존에 설치된 컵 내장형 세척기 8대에서 11대를 추가 설치해 총 19대를 운영하며, 개인 컵 이용 활성화와 다회용기 사용 문화 확산 등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광주시청과 박물관 등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일회용 종이컵 대신 다회용 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회용품 발생량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광주시인재교육원, 광주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 광주소방학교 등 3개 기관에 각 2대씩 총 6대의 다회용 컵(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해 공직자의 다회용기 사용도 확대한다.

광주시는 공공기관 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해 청사 내 회의·행사에 다회용기 대어, 일회용품 없는 축제·행사 시범 운영, 시청 1층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무인카페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병행하고 있다.

또 시민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에 따른 자원 낭비, 다회용 컵 위생관리 등 인식개선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환경을 조성하고 홍보 캠페인, 교육 확대 등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정미경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다회용품 사용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청사 등 지역 내 5개 공공기관에 설치된 컵 내장형 다회용컵 세척기.

대학생 소셜벤처 아이디어 공모전 시, 9월 20일까지 접수

광주시는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제2회 대학생 소셜벤처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모주제는 사회적가치 확산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실현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기술 등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다. 광주지역 대학교 학부생으로 구성된 팀(2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오는 9월 20일까지다.

사회문제 적합성, 사회적가치 우수성, 비즈니스 모델 혁신성을 평가해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분야별 우수상 12팀 등 총 15팀을 선정한다.

참가신청서 및 공모 내용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gjse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장호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에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길 기대한다"며 "지역청년들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역경제 이끌 광주 명품강소기업 찾아라

시, 9월 30일까지 접수...자금지원·맞춤형 프로그램 등 집중 지원

광주시는 '2024년 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9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성장 잠재력과 의지가 높은 지역 유망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해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집중 지원하는 시책이다.

광주시는 명품강소기업에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협업 비즈니스 모델 지원,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세제 혜택, 금융지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해 지역혁신선도기업과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의 성장을 지원한다.

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 모집 대상은 본사와 주사업장이 광주에 있는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이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기존 명품강소기업 중 지정 기간이 만료된 기업 16개사의 재지정 여부에 따라 신규기업의 규모가 결정되며, 총 27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명품강소기업 선정 조건은 매출액 50억원 이상(지식서비스산업은 10억원 이상)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5%이상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 1%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평가는 서류심사, 발표평가 및 현장평가의 3단계로 이뤄지며, 평가 항목으로는 기업의 성장성, 혁신역량, 연구개발(R&D) 투자율,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준비 상황 등이 포함된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오는 12월 중 지정서가 수여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광주테크노파크를 통해 9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성장국장은 "이번 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은 광주의 경제를 이끌어갈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많은 기업이 적극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도시공사-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맞손'

공사, 제품 판로 활성화 지원금 2000만원 전달

광주도시공사는 "최근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광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협약식에는 도시공사 배운식 사업본부장과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최우진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광주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 구매 활성화와 지역

사회 문제 발굴 및 해결 등의 과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협약했다.

광주도시공사는 또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센터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금 2000만원을 전달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 활성화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정민근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 외국인 유학생 장기자랑대회

내달 5일까지 접수

광주시는 "9월 5일까지 '2024 광주 외국인 유학생 장기자랑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외국인 유학생이 광주에 모여 넘치는 재능을 발휘하고 문화적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련했다.

참가자격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노래, 춤, 퍼포먼스 등 개

인 또는 단체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구글폼 누리집(<https://forms.gle/gtspXehEuphuYbV9A>)이나 포스터에 나온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 7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예선심사를 거쳐 9월 13일 본선 진출 10개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본선에 진출한 10개팀은 9월 28일 '외국인 유학생의 날' 행사 당일 5·18 민주광장 무대에서 장기자랑 대결을 펼치게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광주시, 9월 30일까지

광주시는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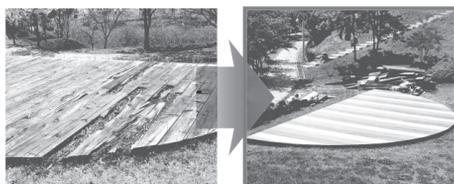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